

편지

● ● ●
박지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이동학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종종 내게 편지를 써서 주곤 했다. 그 편지에는 때로는 격려와 지지의 따스한 말들이, 때로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할 날카로운 충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꼭 그 사람의 편지들을 두어 번씩 되뇌어 읽곤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편지가 화려한 미사여구로 쓰여 있었다거나 기교적으로 잘 쓴 글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간결했지만 늘 다시 읽어보고 싶을 만큼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기에 그 사람의 편지는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마법같은 것이었다. 그 사람의 편지가 내게 주었던 감동을 기억하며, 글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글쓰기는 애정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쓰는 대상에 대한,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멀게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부터 가깝게는 나 자신에 대한 애정까지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든 애정 없이는 글을 쓰기 어렵다. 나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비단 그 사람의 편지만이 아니다. 눈 내린 다음 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붙여 놓았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종이 한 장에서부터 하루하루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매일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조간신문의 어느 기사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기록한 논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애정, 특히 소통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곁에 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내 생각을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애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을 되풀이하고, 또 생각한 바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글 쓰는 사람부터 그 과정 속에서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글의 완성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한 채로 아무리 설명하고 납득시키고자 노력해봐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추상적이지만 글을 쓰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때문에 만약 무엇을 써야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정말 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쓸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러한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일인 듯하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번에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내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글을 쓰는 그 자체보다도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에게 그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일이었다. 특히 그 수업에서는 각자의 글을 읽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논평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든 논리적인 결함이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한 조언들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여러 사람 앞에 부족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부터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올랐음에도 그 주제로 글을 쓸 자신이 없었다. 지적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을 무난한 글을 쓰고 싶었다.

고민을 거듭하다 한 번 용기를 내어 처음의 주제로 글을 썼다. 그때 받았던 논평 중에는 그러한 글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래서 리포트를 완성하기까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해받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했다. 글을 쓰는 내내 내가 받은 논평들을 피하지 않고 최대한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글에 그러한 논평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또 내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에는 논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왜 내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치 수업을 같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의 편지가 내게 마법을 걸었던 것처럼 그때 수업을 들었던 모든 이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그 리포트는 그 수업에서, 심지어는 리포트 공모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글을 잘 써서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글에 애정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사람의 편지가 그저 아름다운 말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써내려간 진심어린 충고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중한게 남은 것처럼, 그 때 조금 더 무난한 글을 쓰거나 내가 받은 지적들을 마주하는 데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써야 하는 글들이 편지를 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글들은 일상적인 글들보다 더욱더 형식적이다. 그 형식 자체도 낮은 것이기에 리포트와 같은 글을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번 글쓰기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의 글들을 읽어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때 몇몇 글들은 수업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대한 답을 하느라 글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섞여 있어 아쉬움을 주었다. 처음 내 글을 다시 읽어보았을 때에도 마치 한 편의 글보다는 각각의 문제에 정답을 써놓은 답안지와 같은 느낌이었다. 아마 형식을 맞추는 데 초점이 쏠려서, 미처 생각을 형식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형식의 간결함과 유기적인 짜임이라는 점에서도 그 사람의 편지는 인상 깊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가다듬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지와 같은 길지 않은 글에서는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형식을 짜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리포트와 같이 긴 글에서는 웬만큼 생각을 정리하고서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형식이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새내기시절 리포트는 형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만약 리포트에 주어진 형식이 없었다면 여러 장의 리포트를 완성하는 일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형식의 흐름에 맞추어서 생각의 흐름들을 정리해나갈 때 조금 더 유기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다.

문득 어릴 적 핸드폰을 처음 사달라고 졸랐을 때, 아버지께서 편지를 써오라고 하셨던 일이 생각난다. 핸드폰이 가지고 싶었던 나는, 핸드폰이 휴대할 수 있는 전화라는 점 이외에 또 다른 그것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했었다. 당시의 핸드폰은 지금에 비하면 별다른 기능이 없었지만, 나는 핸드폰이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점같은, 보통의 전화와는 다른 기능들을 가진 기계라는 점을 편지에 적었고 아버지에게 단순하게 가지고 다니는 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당시의 내 상황과 접목시켜 어떤 부분에서 왜 내게 필요한지 하나하나 적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했었던 그 때의 그 편지쓰기는 학교에서의 글쓰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우리는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여 그 학습한 바를 알리고, 또 그러한 연구내용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알리고자 글을 쓴다. 글

을 쓰다보면, 때때로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과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글을 읽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경험적으로 글을 쓴다는 점에만 골몰하다보면 이런 경우들이 흔히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쓰는 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내 글을 채점하기 때문에 잘 써야한다고 생각하다보면, 글을 읽는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성의껏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잊기 쉬운 것 같다. 오히려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린 내가 아버지께 그랬던 것처럼.

글쓰기교실 연구노트 시리즈

- 좋은 글의 요건: 이익섭(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 논문 작성의 윤리: 이정민(언어학과 교수)
-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김영정(철학과 교수) 외 7인
- 글쓰기의 수사학: 박성창(국어국문학과 교수)
- 질적 연구의 방법론: 황익주(인류학과 교수)
- 경험적 조사 방법론: 김대일(경제학과 교수)
- 수학 글쓰기: 계승혁(수리과학부 교수)
- 인용법: 김태환(독어독문학과 교수)
- 독자 중심의 글쓰기: 이정옥(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 번역과 논리: 김태환(독어독문학과 교수)
-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김수영('주)문학과 지성' 대표이사)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가 들려주는) 글쓰기 노하우」발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주최하는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들의 글쓰기 노하우를 엮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생각, 독서와 표절 등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을 비롯하여, 리포트 준비 과정에서의 팁과 작성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노하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학부생들에 한해 무료로 배부되며, 배부 장소는 글쓰기교실 상담실(61동 312호)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